허리디스크 입원 기간 테니스 대회 버젓이 참가
가족 8명이 입·퇴원 반복 5년간 8억여원 챙겨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 주부 A(여·52)씨는 지난해 4월 12일 열린 '제 6회 광주시장 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같은 날, 광주 서구 한 한방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허리디스크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적혀있었다.

A씨는 이 한방 병원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차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14개의 테니스 대회에 참여했다. A씨가 이렇게 타낸 보험금만 4800만원에 달했다.

#. 주부 B(53)씨가 5년 간 광주지역 병원 신경외과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타낸 보험금만 2억3000만원에 이른다. B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5년간 5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 일가족 8명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기록된 날만 5255일, 이 기간 받아챙긴 보험금은 8억3700만원이나 됐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받는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단속에 나서고 수사기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도 총 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파악됐다.

◇**끊이질 않는 보험사기**=4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173건(광주 95·전남 78건)으로 적발된 피의자들도 596명에 이른다.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사기 금액도 216억(광주 107억·전남 109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범죄는 광주가 20건(70명), 전남이 15건(22명)으로 파악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68억이나 된다. 매월 10억원이 넘는 돈이 보험 사기 범죄로 흘러나간다는 얘기다.

광주·전남 보험사기 현황

작년 173건·가담자 596명
보험사기 규모 216억 달해
올 4월까지 35건·92명 적발

절반 이상이 벌금형 선고
관대한 처벌에 범죄 양산

지난해 전국 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건수 1551건(5714명)을 감안하면, 11.5%가 광주·전남에서 발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금융·수사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범죄 유형도 한층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통상적인 허위·과다 입원(일명 나이롱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인 병원과 보험설계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생겨나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별일 없겠지"라며 온 가족들이 가담했다가 무더기로 범죄자로 전락, 법정에 서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C(36)씨는 자신의 아내(30) 등 친인척 6명을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사고를 가장하거나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광주시 서구 모 한방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보험금 3억 6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광주·전남에 (보험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고 말하지 않아도 범행 의도가 얼마나 나쁜 줄 알 것"이라며 엄벌 의지를 피력했었다. 재판부는 다만, C씨 외에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벌금형(300~500만원)이나 징역형(8~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증가하는데, 처벌은**=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국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5997억 원으로 전년(5190억 원)보다 15.6%나 증가했다. 지난 2001년부터 보험 사기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보험사기에 가담자들도 8만4385명으로 전년(7만7112명)에 비해 9.4% 증가했다.

금융·수사 당국의 지속적 감시에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대한 처벌이 보험사기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2012년(1578명) 보험 사기범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806명(51.1%)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는 415명(26.3%), 징역형은 357명(22.6%)에 불과했다.

국내 보험사기 피해액(2010년 3조 4000억원대)을 놓고 보면 '국민 한 명당 연간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는 금융당국 설명을 감안하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집중 또 집중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대여고(교장 이재연)의 한 교실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국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영·수 모두 평이…탐구과목·한국사 중요도 커져

6월 모의평가 작년 수능 수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른 수험생들은 국어·영어·수학 모두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영어의 경우 교육부의 '쉬운 수능영어' 방침대로 쉽게 나와 1등급컷이 100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문제만 실수해도 2등급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다.

송형래 광주시진학부장협의회장(국제고 진학부장)은 "지난해부터 일관성 있게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영·수 모두 어렵지 않았다. 대신 일부 탐구과목과 한국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고 평가했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에 대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영어는 난이도가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대의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유형에서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변형하는 방식으로 바꿨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다만,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EBS 교재 밖에서 나온 단어나 문장 구조에 다소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국어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됐다. A형은 작년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B형은 쉽게 출제됐다는 게 입시업체들의 분석이다. 국어는 A형과 B형 모두 1등급컷이 98점으로 예상된다.

수학 A형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이고, B형은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다. 1등급컷은 A형 96점, B형 92점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국·영·수학 모두 비교적 쉽게 출제됨에 따라 사회와 과학 등 탐구영역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가 유지됐다. ▲국어 A형 71.1%, B형 71.1% ▲수학 A형 70.0%, B형 70.0% ▲영어 73.3% ▲사회탐구 70.5% ▲과학탐구 70.0% ▲직업탐구 70.0% ▲제2외국어/한문 70.0%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광주에서 2만872명(재학생 2만781명, 재수생 45명, 검정고시 46명), 전남에서 1만7480명(재학생 1만7358명, 재수생 82명, 검정고시 40명)이 응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 하청업체 대표 상대 고소장

불법 파견 고용 행위 관련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4일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의 불법파견 고용행위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내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고 광주지방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32명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대표이사와 광주·곡성공장 도급업체 전·현직대표 15명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사내하청 근로자 315명도 도급업체 대표 7명을 상대로 같은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사내하청근로자 353명은 이날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사내하청업체 직원 132명은 지난 4월 광주고법에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벌금 50만 ~ 300만 원)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로 피해" 잇단 신고

24명 달해…더 늘어날 수도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법무사 사무실 30대 여직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구속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여·35)씨와 관련,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가 추가로 파악돼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말 김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김씨는 개인 파산이나 면책 선고 결정이 나온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건넨 뒤 피해자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개인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특정 계좌에 매월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분납금을 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3900만원 정도지만 아직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김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운영한 법무사 윤모씨에 대해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고 사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불법환전 게임장 잠복 경찰에 덜미

쌍나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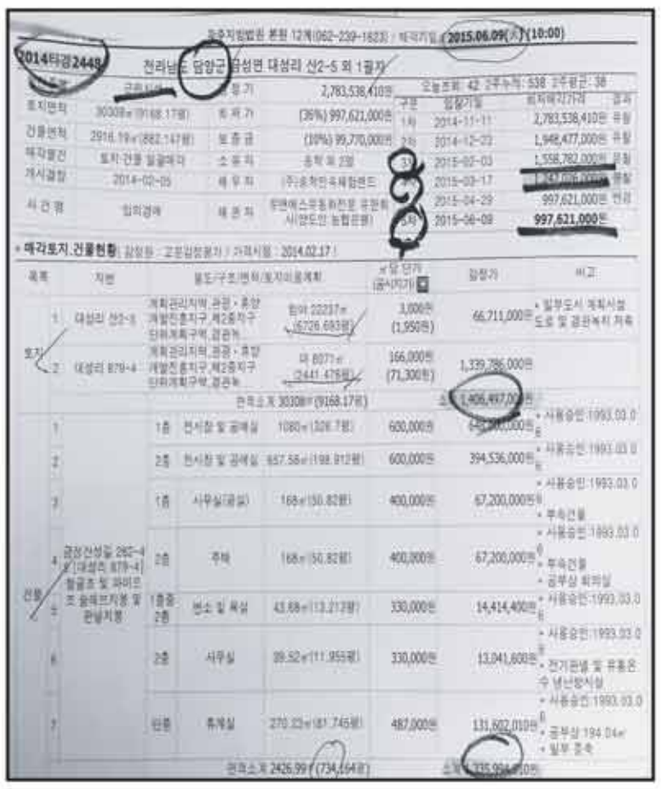
○…단속을 피해 특정 시간대에만 불법 환전을 해온 게임장 업주 등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 등 2명은 지난 3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H게임장에서 슬롯 머신 80대를 운영하며 불법 환전 행위를 해 오다 일주일 동안 잠복근무를 해온 경찰에게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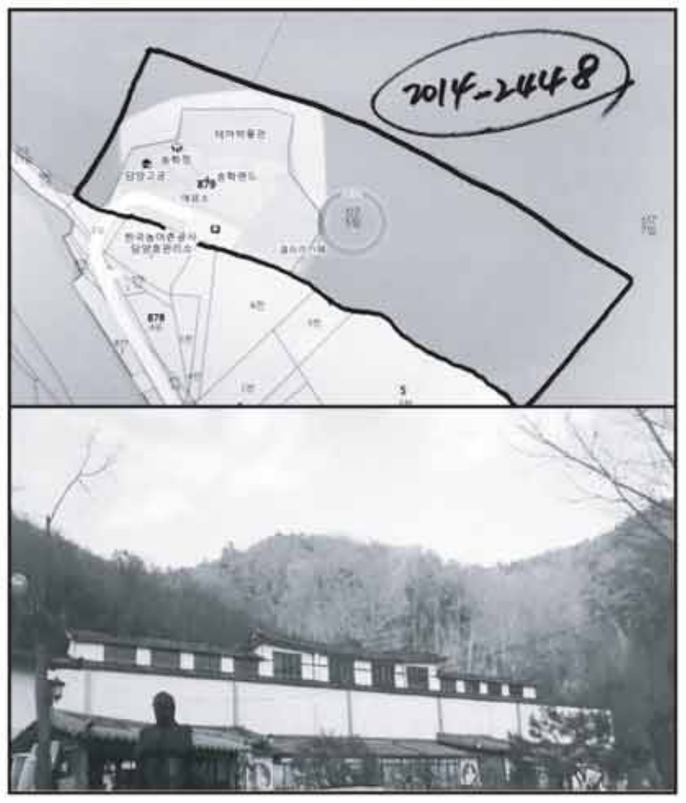
○…김씨 등은 지난 4월 초순부터 손님과 시간을 정한 뒤 화장실 등에서 하루에 2~3차례 몰래 만점당 만원씩 최대 70만원까지 환전을 해 온 사실이 들통.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014 타경 2448, 근린시설, 대박물건,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산 2-5외 1필지
■ 낙찰 후 12억 5000만원 대출 확정
(이자 연 2.1% 월 218만원)
■ 요양시설/ 연수원/ 펜션단지/ 전원 주택단지/ 등등 개발 가능
■ 대지 형질변경으로 공시짓가 10억원 이상 상승 효과
■ 관광진흥자금 5억~10억 보조 가능
■ 추가 비용없이 명도 완료 가능
■ 단독/공동투자 가능(법인으로 공동 소유)
■ 수익률 1억투자 → 5000만원 가능(18개월 이내)



상담문의/(주)오천경매 H.010-3605-5000